

“아세안, 미얀마 군부에 강력 대응해야”

유엔 사무총장 회민국 행동 촉구

아세안 ‘합의 이행’ 책임 강조

싱가포르 “군부 폭력 자체 압박해야”

유엔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며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아세안은 신속하고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도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하고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크리스틴 슈레너 버거너 유엔 미얀마 특사가 해당 권역에 머물면서 주변국들이 일치된 행동에 나서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미얀마 군부가 합의 사항을 지키도록 아세안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저항세력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OHCHR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등 유혈진압에 나서면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적어도 78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3740여명이 구금됐는데 대다수는 재판받지 못했다. 이중 86명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한 채 비공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적어도 25명이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한달간 시민활동가, 언론인, 학자를 비롯한 1561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저항운동 참가자들이 자수하도록 가족들을 감금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콜빌 대변인은 아울러 군부의 탄

압을 피해 이웃나라인 태국과 인도로 피신한 인권운동가나 언론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멤버인 싱가포르도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자제하고 반대세력과 대화를 시작하도록 회원국들이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세안 내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조항에 합의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 품귀 우려에 주유소로 몰린 미 남동부 차량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는 코스트코 주유소 앞에 11일(현지시간) 주유하려는 차량이 빼곡히 세워져 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난 7일 밤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닷새째 멈춰서면서 미 남동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가격도 치솟자 품귀 현상을 우려한 주민들의 차량이 주유소로 몰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관합동 백신 접종 총력전

바이든 “접종하러 오갈때 공짜우버”

대학·약국·맥도날드 홍보전 가세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백악관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장소까지 운송 수단을 공짜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신 접종 미국인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 및 리프트와의 제휴를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제휴는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토록 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은 우버와 리프트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접종 장소를 선택하고, 차량을 호출해 백신을 맞고 오면 된다. 요금은 무료다.

앱에 이 기능은 2주 이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7월 4일까지 운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학생,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현장 클리닉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지역대학과 소매약국 간 제휴도

발표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패스트푸드 대기업으로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운영하는 맥도날드는 백악관과 제휴해 백신 접종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미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커피 컵, 배달상자 봉인용 스티커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미국 보건복지부 슬로건을 넣기로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뉴욕시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변화가인 타임스 스퀘어에 백신 정보를 보여주는 옥외 광고판을 이달 게시할 계획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뒤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민관제휴 의미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주(州) 및 지방 정부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즉각 이용 가능한 연방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더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는 백신 전략을 논의하고자 초당파 주지사들과 면담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인 4명 희생’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

담당검사 “사형 구형할 것”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희생시킨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룬에게는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

가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인 파니 윌리스는 룬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22세의 백인 남성 룬은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 3곳의 스파와 마사지숍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특히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인종범죄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검은 연기 치솟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서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의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화력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연합뉴스

날아오는 로켓포 90% 요격

자체개발 미사일 방어체계

이스라엘 ‘아이언돔’ 위력 과시

이스라엘군(IDF)이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쏜 로켓포를 연이어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이스라엘군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아이언돔이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중부 상공에서 빗발치는 로켓포들을 요격하는 순간”이라면서 영상 하나를 올렸다. 영상에는 밤하늘에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로켓포와 부딪지면서 마치 폭죽이 터지는 듯한 광경이 연출되는 순간이 담겼다.

아이언돔은 미국의 자금·기술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사(社)와 이스라엘항공산업(IAI)이 개발한 단거리 로켓포 방어체계로 2011년 실전에 배치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이언돔 1개 조는 요격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차량 3대와 탐지레이더, 추적시스템, 사격통제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요격 가능 범위는 4~70km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로켓포가 실제 위협이 되는지 분석해 로켓포가 인구밀집지역이나 중요기반시설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만 로켓포를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아이언돔이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5만달러(5600여만원) 안팎이다.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 실전배치 이후 하드웨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개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파엘사는 홈페이지에서 “아이언돔 요격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똥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